



# 매일 설레임 속 출전하는 '늦깎이 주전'

KIA 타이거즈  
차일목 포수

스포츠 포커스

'자꾸 이기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포수다'

KIA 타이거즈의 포수 차일목(27)은 매경기 자신의 기

록을 새로 씨나가고 있다.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펼쳐진 5월 9일, 차일목은 4회초 김수경을 상대로 12-1 팀의 대승을 이끄는 2점 홈런을 뽑아냈다. 차일목은 2003년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부

대에 첫 벌을 내딛은 후 처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라

운드를 놀았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했다는 자신의 프로

데뷔 첫 홈런은 그렇게 6년 만에 터졌다.

지난 20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우익수 옆을 빠

지는 안타로 3루를 밟았으며, 6년째 빠져있던 자신의 3루타

기록에 마침내 '1'이라는 숫자를 채웠다. 생각도 못해봤던

도루는 을 시즌 2개나 만들었다. 2003~2007년 시즌 통틀

어 7점에 그쳤던 타점은 이미 두자리 수를 넘어서졌다.

'안방마님' 본연의 임무에도 손색이 없다. 지난달 10일 주전 김상훈의 부상으로 마스크를 대신 쓰게 된 차일목은 한 달여 만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수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공·수의 눈부신 성장에 차일목의 이름 앞에는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수식어가 이름처럼 따라붙었다. 철새없는 훈련과 경기로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차일목은 요즘 자신의 애구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시기를 살고 있다. 학원으로는 학급 여전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리 등절하기도 하다.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신도 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만큼 안해서 짜증도 나고 나 때문에 팀이 지는 것 같다는 자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덜컥 주전 자리를 맡은 차일목은 팬들에게 육도 많이 먹었다고 웃는다. 지금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는 팬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다.

팀의 5연승을 통해 부쩍 자신감을 얻었다는 차일목은 아직도 자신은 '성장중'이라고 말한다.

"경험이 쌓이면서 경기를 보는 눈도 넓어져 어디쯤에서 위기가 올지, 어떻게 경기가 전개 될지가 보입니다. 그래도 경기에 나설 때마다 내가 알던 볼 배합과 경기 운영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차일목은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 투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마운드 위 선수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주고받으면 투수가 마운드에서 가장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선수마다 성격도 틀리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다독이기도 하고 쓴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도 같고요."

차일목은 이범석 선수에게 '잘 한다, 잘 한다' 했더니 역

효과가 나는 것 같아 요즘 훈련을 많이 내고 있다고 웃었다. 첫 승을 거둔 후 이범석이 '이상하게 일목이 형의 리드가 좋았어요'라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차일목 선수는 특유의 미소로 대답했다.

"프로 데뷔 첫 승이라서 정신도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범석이의 프로 데뷔 첫 승 경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에 기분 좋습니다. 마운드에 있는 선수가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투수를 이끌어 주고 있다고 느낄 때 포수로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동안 차일목은 '수비형 포수'로 통했다.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백업 포수로 활동하면서도 수비만 잘해도 1군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방향을 수정했다.

"저의 특성을 살려 잘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공격면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득점 찬스에서 타석에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캠프에서 공격력 향상을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포수 조련사'로 이름 난 조 범현 감독의 부임도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감독님께서 잘 아시기 때 문에 조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힘들 거라고 걱정도 했지만 많이 배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 진감용 선

배도 많이 배우게 될 거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 해 주셨고... 아래저래 을 시즌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일목은 우연히 야구를 시작했고, 또 우연한 계기로 포수가 됐다. 대구 본리초 5학년 때 학교 야구부가 부원이 없어 해체 위기에 놓이자 반 대학 야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차일목은 야구부원이 됐고 한 달 만에 정식 경기에서 나가 타격 1위에 오르며 야구에 빠졌다.

이후 경운중 재학시절 팀 내 포수가 없어 고민하던 감독이 차분하고 미트질이 좋았던 차일목에게 '포수 체질'이라며 권유해 마스크를 썼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대구상고를 거쳐 흥의대를 졸업한 차일목은 경상도 사나이. 홀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라도의 구수함이 좋다. "워낙에 이쪽 지역 분들이 친근감 있고, 잘챙겨주시는 등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타지 생활을 힘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넘게 미트를 든 차일목은 왼쪽 엄지 손가락에 펴지지 않는다.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충격에 손가락이 굳어버려 흥의대 재학시절 군면제를 받았었다. 그래도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뜻생긴 원손이 자랑스럽다.

"목표 같은 것은 세울 틈도 없었고, 세울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꾸 이기고 싶고, 점수를 안주고 싶고... 내일도 잘 치고, 잘 뛰는데 저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 노을길(화정점)

화정동 미로가방월 마트웨어점 글로벌  
파크로드국이 복지센터드림전시점 풍진여주점  
대표 이봉진  
☎(062)362-3456

### 생태야 생태야

복구 운암동 삼호@정문앞  
생태탕, 해물·야구찜 전문점  
대표 박승규  
☎(062)511-0227

### 삼겹한판(방림점)

남구 방림동 방림파출소위  
단체손님환영 생삼겹살 전문  
대표 김종미  
☎(062)674-2251

### 굿 السم(화정점)

화정동 염주사거리 광주은행맞은편  
삼양 제넥스가 만든 건강식품 전문매장  
☎(062)371-8998

### 풀잎문화센타

동구 총장로3가 제일국장 맞은편 이프유빌리  
화재연예누포드미트페스티벌 플라자  
비즈, 리본공예, 생활공예 등 회원수시모집  
☎(062)234-5579

### 전라남도장애인스포츠연맹

순천시 장천동 광주은행옆 렉카포토3층  
사진수정, 복원, 편집, 명함, 평집  
대표 임정희  
☎(061)742-1230

### 유학허브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방향  
정규조기유학, 어학연수, 방학캠프  
비자상담 협영합니다.  
☎(062)263-3434

### 노을길(도산점)

광산구 도산동 구피랑새예식장 맞은편  
퓨전요리전문점  
동아리고치구이  
☎(062)941-2345

### 여민락

동구 운립동 증심사입구  
전통찻집  
대표 선정인  
☎(062)236-0337

### 성인용품

남구 방림동 방림신협 앞  
빌기부전, 조루증, 정력강화  
☎(062)434-6022

### 청해진

쌍촌동 KT상무전화국정문앞  
돌, 우럭, 능어, 광어, 세포시, 매운탕 단체손님환영  
저희 업소는 자연산만을 취급합니다  
☎(062)384-8992

### 유미식당

서구 능성동 서문교회 맞은편  
곰탕, 육개장, 비빔밥, 돌솥비빔밥, 불고기, 백반  
주물럭, 삼겹살, 갈비탕 전문  
☎(062)369-7913

### 수정나라

순천시 장천동 광주은행옆 렉카포토3층  
사진수정, 복원, 편집, 명함, 평집  
대표 김동희  
☎(070)123-5661

### 푸른건강원

복구 풍향동 광주교대편 D마트건너편  
양파즙, 배즙, 포도즙, 각종과일즙  
대표 이동현  
☎(062)512-2752

### 느티나무

동구 소태동 증심사입구 배고픈다리 옆  
들깨콩나물해장국, 주물럭, 불백, 생삼겹살, 추어탕  
대표 김영자  
☎(062)224-0803

### 영웅상사

복구 중흥동 안보회관옆  
자동차실내·외 인테리어용품,  
피닉스 경보기 호남총판  
☎(062)369-0787

### 동일액자·앨범

복구 오치동 용봉중앞  
입축앨범, 각종액자 주문, 제작 및 배달  
대표 이준식  
☎(062)268-8157

### 세주수학전문학원

화정동 염주사거리 광주은행맞은편  
초, 중학생 수학 강생수시모집  
'원장님 1:1 개인지도'  
☎(062)385-0069

### 꽃돼지

서구 쌍촌동 129-17번지 5.18생명문화관 맞은편  
생삼겹, 돼지갈비, 불백, 전골, 유황오리  
백반, 제육볶음, 단장찌개  
☎(062)384-9293

### 국일관횟집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원미트앞  
출생생경 두루치기 나에게한없 숙식기능급구  
대표 한점용  
☎(061)471-9192

### J조안성형외과

동구 금남로3가 카톨릭센터 2층  
J조안성형외과 전문병원  
대표 조안영  
☎(062)225-0118-9

### 신명의자

동구 학동 학운동사무소앞 일방도로  
쇼파, 의자, 천강이 및 수리전문  
관공서, 금융기관, 의료기관 납품전문  
☎(062)234-8980

### 만리향

남구 봉선동 봉선1동사무소옆  
전통중화요리 전문점 면류, 식사류 전문점  
대표 윤수희  
☎(062)674-1105

### 노바전자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B번도로 주유소옆  
각종네비게이션 사고·팔고 암그레이드 A/S 전문점  
대표 마천석  
☎(062)954-9974~5

### 보라매당구장

화정동 광주은행사거리 서부축산2층  
최신형 당구 다이설치완비  
아늑한 분위기 최고의 서비스제공  
☎(011)611-2121

### 온누리헤어샵

동구 복로동 구시청4거리에서 광주천변쪽  
남아웃렛, 불암마리, 불암매직스�테이트, 셋팅페어, 최신유형스타일전문  
☎(062)223-3777